환상의 팀워크로 가슴에 품은 열정을 힘껏 쏟아내고 있는

창원문성고등학교도서관(滿心齋)

〉〉〉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창원을 가다

창원은 거리상으로는 꽤 먼 곳이지만 필자에게는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 친한 친구와 선배가 창원에 터전을 잡았으며, 고개만 넘으면 되는 가까운 진해에는 해군인 인척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개인적인 연유로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서인지 실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창원 가는 길은 뿌듯함이 먼저였다. 물론 필자와 함께 동행한 최인경씨에게는 무박2일의 빠듯한 일정이 나름 고달팠으리라 생각되어 좀 미안하기도 했다.

이번 도서관탐방은 창원문성고등학교도서관(만심재)이다. 만심재는 우수사례로 수차례 언론에 소개되기도 한 곳이다. 또 마침 창원문성고등학교 바로 옆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는 '제6회 전국평생학습축제'가 열리고 있어 도서관탐방도하고 축제도 둘러볼 겸 길을 나섰다.

창원문성고등학교는 창원전문대학과 창원컨벤션센터 사이에 있다. 창원컨벤션센터에서는 전국평생학습축제가 한창이었다. 야외에는 학교도서관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고, 실내에는 경남지역 공공도서관들 모두와 각 지역 공공도서관에서도 부스를 운영해 도서관과 문화활동 등을 소개하고 있었다. 우리는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잠시 둘러보고 창원문성고등학교로 향했다.

고등학교치고는 건물 규모가 꽤 크다. 학교 건물로 들어서서는 늘 그렇듯이 층별 배치도를 먼저 찾았다. 도서관은 2층에 위치해 있다. 점심시간이어서 학생들이 복도와 운동장에 가득했다. 학생들은 우리를 보고 약간 놀란 듯 했으나 곧 미

전국평생학습축제 현장 ▶

만심재 입구 ▶

▲ 서가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 학생들

소를 지어주었다. 학생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우리의 맘도 환해졌다. 복도를 따라 걸어 들어가니 만심재라는 도서관 현판이 눈에 띄었다. 슬그머니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니 김미영 사서교사가 우리가 온지도 모르고 한참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가 인사를 건네니 반갑게 맞아주셨다. 우리는 잠시 도서관을 둘러보고 테이블에 앉아 김 사서교사로부터 도서관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 도서관의 연혁과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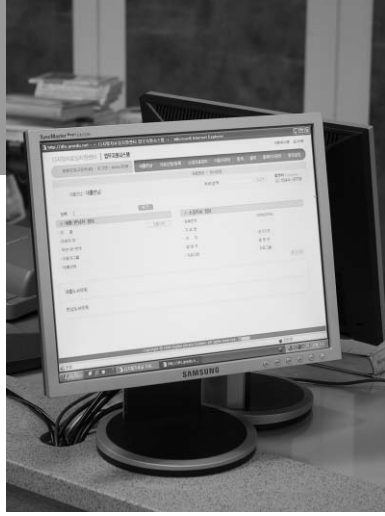
창원문성고등학교는 전체 33학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교생 1,138명이 재학중이며 교사 68명이 재직 중인 남녀공학이다.

도서관은 1984년 개교와 함께 개관했다. 1998년 6월 면학관 2층으로, 2001년에는 면학관 3층으로 확장이전을 했다. 그러다가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어 교육청에서 5천만원, 창원시에서 4천 800만원, 학교 자체적으로 5천 200만원을 확보해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리모델링을 하고, 2007년 3월 9일 새로운 도서관을 개관했다. 올 6월에는 '2007년 경상남도 학교도서관 활성화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도서관이 기존 면학관 3층에 있을 때에는 공간도 비좁고 접근성이 떨어지며 1층과 2층은 식당, 4층은 체육실이어서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교실 1칸 반 정도의 공간에 장서 1만 4천권을 소장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장서 보관실 역할에 머물렀다. 이에 도서관 리모델링을 계획하면서 본관 2층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기존의 과학실, 미술실, 가사실 등 교실 4칸반(303m²[총92평]) 규모의 넓은 공간을 확보했다.

성공적인 리모델링을 위해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는데 특히 2001년 창원문성고 교사 재직 중 도서관을 맡았던 박종훈 도교육위원(2002년-현재)의 전폭적인 지원과 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은 류용수 교장, 도서관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많은 열정을 보여준 허인수 국어담당 교사와 김경연 정보담당 교사 그리고 도서관 지킴이 김미영 사서교사 등이 오늘의 도서관을 만든 주역이다. 김미영 사서교사는 문헌정보학을 늦게 공부하고 졸업하자마자 2001년부터 창원문성고등학교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행정직 사서 등을 거쳐 2007년 정식으로 기간제 사서교사로 임용돼 현재 만심재의 안주인이다.

◀ 신문을 정독중인 학생
◀ 허인수 국어담당 교사, 김미영 사서교사, 류용수 교장, 김경연 정보담당 교사(왼쪽부터)



▲ 이용자를 배려한 양면 모니터

또한 그동안 경남학교도서관연구회 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창원문성고등학교도서관에 적용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도서관은 크게 전자칠판을 갖춘 모둠학습실, 문헌자료실, 쉼터(브라우징 코너, 음악감상, 신문대), 안내 및 대출·반납등 4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공간마다 돋보이는 아이디어가 가득했는데, 특히 전자칠판을 갖춘 모듬학습실은 도서관 활용수업의 일환으로 논술수업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공간이었다. 또한 도서관 입구 안내데스크는 높이를 낮춰 사서교사와 이용자의 눈높이를 배려하였고, 책을 대출할 때 사서교사와 학생이 동시에 같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양면 모니터를 설치하는 등 이용자를 배려한 세심한 노력이 시선을 끈다. 또한 도서관 곳곳에 초록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정원을 꾸민 것은 김경연 교사의 노력 덕분이라고 한다.

도서관 이름인 만심재는 '마음을 채우는 집'이라는 의미로 재학생과 졸업 동문들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된 의미있는 이름이다. 도서관 개방시간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이며 올3월부터는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 장서는 DVD 120여개, CD 70여개, 정기간행물 15종, 신문 3종, 단행본 14,000여권 정도이다. 교사는 1인 5권, 학생과 지역주민은 1인 2권을 1주일간 빌려준다. 현재 하루 평균 100권 정도가 대출되고 있다.

도서관 실무는 김미영 사서교사와 도서부 동아리 '헤이온와이' 17명, 지역시민 도우미 2명이 함께 맡고 있으며 허인수 국어담당 교사와 김경연 정보담당 교사가 김 사서교사를 돕고 있다.

도서부 동아리 '헤이온와이'는 2005년에 구성되었는데 도서관의 자료대출·반납, 정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도서관 관련 각종 행사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영국 웨일스지방의 책마을 이름이기도 한 '헤이온와이'를 도서부 동아리 이름으로 정한 것은 책을 사랑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하는 도서부원들의 마음이 모아진 것이라고 한다. 지역시민 도우미는 2007년 1학기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분들로 대출, 반납, 자료입력 등의 일을 돕고 있다.

▲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에서 책을 대출중인 학생들
▶ 도서관 내 초록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정원

지난 3월 9일 도서관을 개관한 후 더욱더 바빠졌다. 4월에는 교직원 및 학생 이용자 교육을 실시했고 4월부터 7월까지는 10주간 '독서문화교실'을 운영하기도 했다. 또한 6월에는 창원 지역 학교도서관 연합동아리 활동 등에도 참여했으며 7월에는 도서 다독자를 선정해 상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9월에서 11월까지는 다시 '독서문화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12월에는 학교축제로 '독서골든벨'과 '도서관영화제' 등을 기획하고 있다.

도서관 재개관이후 리모델링이 성공적이라는 명성을 얻은 덕분에 방문자가 끊임없어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요즘이지만 열정적으로 늘 새로운 시도를 하는 창원문성고등학교도서관의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다.

〉〉〉 창원문성고등학교만의 도서관문화 프로그램

창원문성고등학교도서관은 도서관을 교수학습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각종 도서관문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인성교육으로까지 그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도 도서관을 개방하고 학부모와 지역민을 위한 교양강좌를 개설해 자녀들의 독서지도를 돕고 있다. 영화로 만나는 문학기행등의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녀의 진로 상담 등도 돕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 독서문화교실

책과 영화를 통해 삶을 되돌아보고 잠시 쉬어가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4월 25일(수)부터 7월 18일(수)까지 3개월간 독서문화교실을 열었다.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이용법, 영화분석, 시와 친구되기, 책과 미래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이 열린다. 박종훈 도교육위원, 양재한 창원전문대 문헌정보과 교수, 허인수 국어담당 교사 등이 강사로 나섰다. 9월말부터 11월말까지는 영화감상, 한시, 독서요가 글쓰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논술연구팀 운영

대학입시에서 논술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논술교육이 독서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판단 하에 창원문성고등학교에서는 희망자를 신청받아 일주일에 1시간씩 논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논술교육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06년 논술연구팀을 구성했다. 논술연구팀은 국어, 수학, 과학, 철학 교사 등 10여명이

▼ 독서문화교실

▼ 논술수업 중

▲ 교과별 서가

참여하며 월1회 정도 연구모임을 갖고 있는데 김미영 사서교사도 함께한다. 도서관에는 교과별 서가를 별도로 설치해 논술연구팀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논술수업 등 교과수업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명상요가를 통한 독서교육**

재량활동시간에 독서요가 활동을 학교 특색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바른 자세로 집중해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마련했다. 명상요가를 통해 독서가 단순한 책읽기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삶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프로그램은 조길상 국어담당 교사가 진행하며 현재 1학년 대상 '좋은 말과 감동적인 말을 찾는 독서지도'를 실시해 학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 향후 운영계획

우선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서관 활성화 관련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향후 동 · 하계 방학 중 부모와 함께하는 도서관 놀이 프로그램으로 '문학의 밤'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학의 밤'에서는 시, 소설, 음악, 영화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대화의 시간을 갖게 하고 이를 통해 가족애와 함께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주고자 노력할 것이다.

▲ 명상요가를 통한 독서를 하고있는 학생들

〉〉〉 가슴에 품은 열정을 힘껏 쏟아내는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작년 이맘때쯤 학교도서관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학교도서관 현장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때 당시에도 이구동성으로 학교도서관 관계자들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관 담당 인력인 사서교사 확보, 예산지원, 학교도서관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창원문성고등학교도서관은 많은 학교관계자들이 견학을 오고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우수사례로 뽑힐 정도로 좋은 운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존 행정직 사서를 사서교사 체제로 전환하고 도서관 활용수업을 위한 모둠학습실을 마련했으며 학교예산에서 장서구입과 도서관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를 최우선으로 확보해 오는 등의 꾸준한 노력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박종훈 도교육위원, 류용수 교장, 허인수 교사, 김경연 교사, 김미영 사서교사 등으로 구성된 완벽한 팀워크는 다른 학교도서관에서는 보기 힘든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 독서와 음악감상을 즐기고 있는 학생들

▲ 도서검색을 하고 있는 학생들

앞으로 더 나은 학교도서관 구축을 위해서는 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도서관을 활용한 각 교과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도서관들은 시설과 장비는 어느 정도 구축되었으나 활용도를 끌어 올리는 것이 과제이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안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서교사나 사서도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키워가야 할 것이다. 미래는 항상 현재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자료 수서를 위해 각 교과목 단원에 필요한 자료 선정에 관한 배경지식을 갖추어야하고, 지역민이나 이용자들에게 질 좋은 교양 프로그램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능력을 더욱 향상해야 한다.

공교육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향후 학교도서관이 학교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학교도서관이 올바른 교육 세우기에 일등공신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제5법칙에서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이다' 라고 했는데, 필자가 생각하기에 창원문성고등학교도서관은 이 말을 가장 실감나게 해주는 도서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 같다.

(글 : 심효정, 사진 : 심효정, 최인경)